

인터넷銀특례법, 국회 통과 가능성 '반 반?'

여당내 반발 교통정리 여전히 불투명 야당도 타 법안 연계처리 요구 가능성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규제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각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기국회 개막과 더불어 회동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이석으로 오전 회동이 10분만에 끝난데 이어 오후 회동마저 취소되며 협상은 중단됐다.

당당 상임위원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원내대표에 특례법 처리를 위임했지만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상임위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8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여당은 25~34%를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했다가 34% 수준에서 완화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다. 당초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되 기업집단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안을 추진했다.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길을 확대해 주기 위한 묘수였다. 그러나 이는 ICT 분야의 특정기업에게만 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ICT 분야의 자산 비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로 쟁점을 좁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쟁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의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무엇보다 여당 내부적으로도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이다. 8월 임시국회 폐회 하루 전 있었던 지난달 2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당 내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의총에서 여당 내 찬성파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시장에 보다 강력한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진, 제윤경 의원 등 반대파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적은 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내 반발이 정리되더라도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본부, 금융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6일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청소년 10여명을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부른학교에 다니는 전교생중 금융에 관심이 있는 장애 청소년 10명이 희망, 전환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창구체험 금융사무기기를 체험 은행직업체험관 신비한 금고 체험관 미래금융과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핀테크 금융체험관 등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했다.

한편, 김장근 NH농협은행본부장은 "전북도민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축산환경개선 활동

전북농협은 6일 지역본부에서 농협사료 전북지사 관내 축산농가와 함께 축산냄새 제로화를 위해 '축산환경개선 실천 협약식'을 했다.

지역본부와 농협사료가 상호 협력, 추진하는 금차 사업은 농협사료 이용농가 중 환경개선이 필요, 냄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 농가를 선정 약 2개월간 냄새저감 효과가 탁월한 냄새 저감제(농협사료 개발 미생물제제 '안나노')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냄새저감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북농협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실천 및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 냄새 발생 원인 장소에 냄새물질 측정 등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할 예정이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최근 축산업이 환경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축산 냄새저감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10년간의 발자취 한곳에 담다'

전북개발공사,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백서 발간

전북개발공사는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조성한 '전주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10년간(2008~2018)의 발자취를 수록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 만성지구는 혁신도시 연접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낡고 오래된 전주 지방법원 및 검찰청 청사를 법조타운으로 이전, 전주 서북부권의 도심 활성화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전북개발공사, LH가 공동사업으로 했다.

백서는 300쪽 분량에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배경 및 계획, 용지보상, 조성공사, 법조타운 건립 등 사업 시행 과정, 사업 성과와 미래상 등 3

개 분야로 나눠 정리, 대외적으로는 사업지구에 대한 홍보를 대내적으로는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도민의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만성지구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준공까지 전 과정의 귀중한 이야기를 백서에 담았다"며, "탄생 법조타운 시대와 전북개발공사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개발백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 다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 할 계획이며 일반인은 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부안농협 농촌사랑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은 6일 지역본부와 부안농협 임직원 농촌사랑봉사단회원 등 300여명은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시기를 놓친 부안군 상서면 김진관 농가를 찾아 아로니아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4천억원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 명절 자금 지원기간은 10월 10일까지며 자금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 신규자금 및 기한연장 각 2천억원 총 4천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

금대출 모두 포함,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명절자금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 상품에 따라 최고 1.3%의 우대금리를 제공기로 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본부장은 "금차 추석 명절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5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가족사랑요양병원과 사회공헌분야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원 전북은행 부행장, 박제식 안행교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 김경연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 박진만 가족사랑요양병원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북은행과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등은 각 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공동 참여, 사회공헌 담당부서 정기적 상호교류 실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은 "지역사회에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소외계층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원 전북은행부행장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각 사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김영태 기자

나눔 문화 확산 위한 '맞손'

전북은행-효사랑전주요양병원, 사회공헌분야 업무협약 체결

전북은행은 6일 지역본부와 부안농협 임직원 농촌사랑봉사단회원 등 300여명은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시기를 놓친 부안군 상서면 김진관 농가를 찾아 아로니아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